

주제

신아시아 시대, 중국 문화정책의 변화

<발제문>

김관용 교수

(연변대학교, 서울대 규장각 국학연구소 객원연구원)

<김관용 교수 프로필>

▣ **履歷**

김관용 (金寬雄) 1951년 7월 20일 중국 연길시에서 출생, 조선족, 남자.
 1978~1982 연변대학 중문학과 졸업
 1982~1985 연변대학교 대학원 한국문학 석사 졸업
 1985~1987 연변대학교 조선어어문학 학과 전임강사
 1987~1991 연변대학교 대학원 한국문학 박사 졸업, 문학박사학위 획득
 1991~1996 연변대학교 조선어어문학 학과 부교수
 1996~2010.8 연변대학교 조선-한국언어문학 학과 교수, 박사생도사,
 연변대학교 문과학술위원회 주석,
 연변대학 비교문학 및 비교문화연구소 소장,
 중국작가협회 연변분회 부주석,
 제6차, 제7차 중국작가대표대회 대표 역임,
 연변조선족문화발전추진회 부회장.
 2010.9.1~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국학연구소 객원연구원.

1980년대 중반 이래 일찍 중국의 북경대학, 산둥대학, 길림대학, 조선 김일성종합대학, 한국의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배재대학교 등에서 객원 교수 방문학자로 교학, 연구 활동에 종사한적 있음.

▣ **주요한 학술저서**

1. 『韩国汉文小说史』, 北京大学出版社, 2010
2. 『김학철문학과의 대화』, 延边人民出版社, 2008
2. 『북한문학의 이해』, 창과 현, 2006년
3. 『북한문화의 이해』, 창과 현, 2004
4. 『한국고대소설사고』, 延边大学出版社, 1998
5. 『중한국고대소설비교연구』, 延边大学出版社, 2008
6. 『중한국고대시가비교연구』,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05
7. 『한국문학의 발전과 중국문학』, 延边大学出版社, 1996
8. 『한국고대소설서사모식연구』, 延边大学出版社, 1985.
9. 『서양모더니즘문학사론』, 延边大学出版社, 1999.
10. 『서양문학사』, 延边大学出版社, 1998
11. 『외국문학사』, 延边教育出版社2001)
12. 『동서양문화의 향연』, 延边教育出版社, 1994
13. 『수필창작론』, 延边大学出版社, 2006
14. 『비교문학개론』, 延边大学出版社, 2001.
15. 『역사의 강, 두만강을 말한다』 연변문학 잡지 2010년 연재

▣ 주요한 번역서

1. 『文心彫龍』 韓譯(2007)
2. 『儒林外史』 韓譯(2008)
3. 『菜根譚』 韓譯(2008)
4. 『金瓶梅』 韓譯(2010)
5. 『中國古代散文選集』 韓譯(2002) 등 다수

▣ 주요한 창작서

1. 중단편소설집 『소설가의 아내』
2. 기행수필 『동서양문화의 향연』 등 다수

▣ 문학상, 학술상 수상 상황

1. 제2회 중국조선족문학비평상 2000년
2. 제2회 중국 한국학 臥龍學術상 2008년
3. 제3회 해외 운동주문학상 2008년
4. 화림문화상 1997년
5. 연변문학 운동주문학상 2003년
6. 중화인민공화국창건 30주년 경축 문학상 1979년
7. 중국 공청단 중앙에서 발급한 우수작품상 1998년 등 다수

차례

1. 들어가는 말
2. 모택동시대- 공명(共名)상황속의 중국의 문화정책
3. 등소평시대- 공명으로부터 무명(无名)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의 문화정책
4. 강택민시대- 무명(无名)상황속의 문화정책
5. 호금도시대- 정치체제전환기의 문화정책
6. 마무리는 말

1. 들어가는 말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0세기 후반기에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몰락은 “사회주의의 대실패”와 “역사의 종말”을 증명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는 등소평 이론의 인도아래 30여년의 개혁개방을 거쳐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정도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즉 30여년의 개혁개방을 통하여 사회주의계획경제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서 사회주의시장경제의 틀을 마련하고 고도성장의 경제발전과 현대화를 실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무대에서 다시 강대국으로 발돋움을 한 성공 시대를 열고 있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중국 국민들의 물질생활수준이 날로 향상되어 감에 따라 문화적인 수요도 급속하게 증대되어 가고 있으며, 문화시장이 급속하게 형성되었고, 문화산업이 신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발전 추세는 오늘날의 중국의 문화정책에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고 있으며 새로운 도전을 걸어오고 있으며 문화정책의 전면적인 형태전환과 새로운 조정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혁개방 30년래의 문화정책발전 과정에 대해 정리하는 것은 중국에서의 미래의 문화발전의 방향을 내다보는데 유리하며 보다 타당하고 유력한 정책이나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중국 문화사업의 발전과 번영을 추진

하는데 유익할 것이다.

이른바 문화정책이란 사회의 공공 권위가 특정한 상황 속에서 일정한 문화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정한 행동방안이나 행동준칙이다. 문화정책의 기능은 유관 기구나 단체 또는 개인의 행동을 규범하거나 지도하는 것으로서, 그 표달형식은 법률법규, 행동규정이나 명령, 국가지도자의 구두나 서면 지시 그리고 정부의 대형기획이나 구체적인 행동방안 및 이와 상관된 책략 등이다. 중국의 실제상황으로부터 본다면 령수인물의 구두나 서면 지시, 중국공산당 역사 대표대회의 보고와 정부사업보고 중에서 언급된 문화 부분에 관한 것들로서 집정당으로서의 중국공산당의 핵심적인 문화가치이념과 문화주장, 문화의지를 체현하였는바, 이런 것들은 중국의 문화정책의 가장 권위적인 조정부분이다. 공공정책학의 각도에서 볼 때 이런 연설, 특히 그 정신실질은 흔히 문화정책의 근본적인 가치취향과 발전방향을 확정하였는바 “원정책(元政策)”의 의의를 갖고 있다. 즉 “정책에 관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국무원)나 문화를 관장하는 각 부와 위원회, 각 성시(省市) 등에서 반포한 공문들은 기본정책이나 구체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개혁개방 30여년동안 중국의 문화정책의 변화과정을 주로 살펴 보면서 그 반탄대(反弹台)으로서의 개혁개방 이전 모택동시대의 문화정책과 앞으로의 중국의 문화정책의 발전 추세에 대해서도 다소 언급하고자 한다.

2. 모택동시대- 공명(共名)상황속의 중국의 문화정책

주지하다시피 모택동은 가철치철한 혁명전쟁과 계급투쟁을 통해 신중국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사상체계를 형성하였다. 바로 이런 까닭에 모택동은 역사와 사회 변화의 핵심적 요인을 결국 계급투쟁이라고 전제하였는바, 그의 사상 중에서 중추를 이루는 것은 “계급투쟁론”이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에도 모택동의 계급투쟁의 이론은 여전히 그의 사상체계 속에서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기에 모택동은 사회주의 사회에도 계급은 여전히 존재하고 계급투쟁이 지속되지 않을 수 없다고 인정했다. 모택동은 이른바 “무산계급 독재하에서의 계속혁명론(无产阶级专政下继续革命论)”을 강조하여 중국사회를 붕괴의 변두리까지 몰고 간 10년 동안의 대동란 “무산계급문화대혁명”을 일으키기까지 했다.

이뿐만 아니라 모택동은 생산력중심의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의 유품론을 수용하면서도 일정한 역사적 조건에서는 생산관계와 상부구조의 개혁을 통해서 생산력의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바로 이런 까닭에 신중국이 건립된 후 오랫동안 계획경제체제를 실시하고 정치와 사상이 사회질서를 주도하게 되었다. 이런 점은 문화대혁명 시기 임표, 강청 같은 정치야심가들에 의해 극단화되어 이른바 “정치 돌출이 으뜸(政治突出第一条)”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기에 이른바.

이런 계급투쟁, 정치돌출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속에서 문화의 정치교화의 기능이 장기간 과도하게 강조된 반면에 문화가 갖고 있는 심미적 기능과 오락적 기능은 정치수요에 의해 경시되거나 홀시되었다. “정치표준 제1, 예술표준 제2”은 당시의 문학예술분야만이 아니라 모든 문화 부문에 모두 통용되는 문화의 준칙이었다. 총적으로 개혁개방 이전시기에 중국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과학, 예술) 등 분야의 분화정도가 아주 낮았으며 장기적으로 정치·경제·문화는 “분야합일”의 상태에 처해 있었다. 당시 중국에도 문화건설에 관한 방침이나 정책, 이를테면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齐放, 百家争鸣)”, “정치표준 제1, 예술표준 제2(政治标准第一, 艺术标准)”, “문예는 무산계급정치를 위해 복무해야 한다(文艺为无产阶级政治服务)”, “문예는 노동자,농민, 병사들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文艺为工农兵服务)”, “문학예술 창작에서는 혁명적 낭만주의와 혁명적 사실주의가 결합된 창작방법을 견지해야 한다(文艺创作要坚持革命浪漫主义与革命现实主义相结合的创作方法)” 등등을 제정하기도 했다. 이런 문화정책의 원칙은 모두 모택동의 《연안문예좌담회의에서의 연설(在延安文艺座谈会上的讲话)》의 기본정신을 이어받은 것으로서 “문학예술은 인민을 위해 복무하고, 사회주의를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방침에 좇아 문화의 정치교화기능만을 강조했다. 립표, 4인방이 득세하였던 문화대혁명시기에는 문화예술 사업이 정치의 도구로 되어 수령의 우상화하는 도구나 국민들의 사상을 단속하는 도구로 전략되어 문화와 예술이 대중들의 정신생활을 윤택하게 주고 인간들의 정신, 문화적인 수요를 만족시켜주는 “본체”적인 기능을 상실하게 하였다. 더욱 한심한 것은 문화예술이 직접적으로 당내투쟁의 도구로 전략되었다는 점이다. 문화대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요문원(姚文元)의 문예비평 《신편 역사극 〈해서파적〉을 논함(评新编历史剧〈海瑞罢官〉)》은 모택동이 유소기, 등소평 일파를 타도하는 당내투쟁에서의 비밀병기로 이용되기도 했으며 고대 사상이 공자(孔子)에 대한 비판이나 고전소설 《수호전(水浒传)》에 대한 평가 역시 모두 문혁 말기 당내정치투쟁의 도구로 이용되었다.

이처럼 문화가 정치의 시녀, 계급투쟁이나 중국공산당 내부의 정치투쟁의 도구로 전략하게 된 것은 모택동의 만년의 과오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적 계획경제의 필연적 결과이며 또한 건국 초기 특수한 역사환경이 조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항미원조(抗美援朝)” · “3반5반(三反五反)” · “농촌과 도시에서도 생산수단의 소유제 면에서의 사회주의개조운동(一化三改)” · “반우파운동(反右派运动)” · “대약진운동(大跃进运动)” · “인민공사화운동(人民公社运动)” 등등 거듭되어 일어나는 전쟁과 정치운동에 있어서 대중과 대중의 혁명적 열정을 동원하는 일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었던 것이다. 문화가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게 된 것은 건국초기 신생 정권을 공고히 하고 사회 구성원들을 강력하게 통합시키고, 대중을 동원하여 국내외의 압력에 대항하고 국가의 산업화의 기초를 다지는 등 여러 면에서 일정하게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의 정치도구화 경향은 인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수요를 무시했으며, 문화계의 지식인들의 문화창조의 적극성과 자주성을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문화분야에서 진정으로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齐放, 百家争鸣)”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없게 하였다. 문화대혁명 10년 동안에는 문화는 더욱 직접적으로 정치투쟁의 도구로 전락됨으로써 수많은 문화인들이 박해를 당했고, 문학예술작품들이 비판당했으며 문화계는 쑥대밭이 되었다.

모택동시대의 문화정책이 이처럼 권위주의적이고 일원적이었기에 중국에서 유행하는 술어로 표현한다면 개혁개방 이전의 모택동시대의 중국문화는 일종의 공명(共名)의 문화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문화 공명(共名)은 계급투쟁, 노선투쟁, 정치돌출 등 일련의 개념으로 시대의 주제를 망라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모택동시대의 공통되고 통일된 시대의 명분 혹은 원칙은 계급투쟁 · 노선투쟁 · 정치돌출 등을 포함한 전통적인 사회주의 이념으로서 이런 시대의 명분 혹은 원칙은 주로는 모택동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었다.

즉 모택동은 개혁개방 이전 중국문화정책의 원정책(元政策)을 만들어낸 장본인이었으며, 모택동의 좌경문화노선의 가장 적극적인 그 추종자이고 집행자였던 강칭의 기호나 지시들은 당시의 문화정책의 “금과옥조(金科玉条)”로 되었다. 예컨대 강칭이 보아서 나쁘다면 곧바로 “반동영화”나 “반동소설”로 낙인되었고, 강칭이 좋아하는 또한 지시를 내렸다는 것들은 최고의 고전이나 경전적인 작품으로 되었다. 그리하여 중국에는 모든 작품이 독초(毒草)로 되었고, 다만 강칭이 칭찬한 8개의 극만 “혁명양판극(革命样板戏)”, 즉 “혁명적인 본보기극”이라고 하늘 높이 추켜올려져서 온 나라에 8개의 양판극만 살아남아 중국은 줄지에 조금도 과장 없는 문화의 사막으로 변했다.

모택동의 사회주의로 인해 중국인들은 모두가 물질적으로 빈곤해졌고, 사람들은 모

두 연속 들이닥치는 계급투쟁, 노선투쟁 속에서 정신적으로 언제나 불안과 공포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으며 경제상의 현대화와 정치상의 민주화를 실현한다는 100년간의 꿈은 정반대 방향으로 점점 멀어졌다. 중국은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3. 등소평시대- 공명으로부터 무명(无名)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의 문화정책

등소평은 모택동의 휘하에서 새중국을 창건하는 혁명전쟁의 년대에는 모택동의 충실한 부하로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개국원훈으로서 모택동과 사상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한 충실한 동지였다. 그러나 신중국이 창건된 후 등소평은 모택동과 서로 다른 사회주의 사회관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 실천적으로도 사회발전과 역사변화의 동력에 대한 인식에서도 상당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런 차이점은 중공 8차대회에서 이미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모택동이 지휘한 대약진, 인민공사 운동의 실패로 그 후과를 수습하기 시작했던 1960년대 초부터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났다. 1962년 7월 2일, 중공중앙 서기처 농업문제공작회의에서 등소평은 실사구시를 강조하면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고양이 좋은 고양이이다”라는 그 유명한 “흑묘백묘(黑猫白猫论)”를 내놓은바 있다. 바로 이런 실용주의적인 경제관 때문에 등소평은 유소기와 함께 “중국공산당 내부의 자본주의 길로 나가려고 하는 가장 큰 집권파”, “수정주의분자”로 지목당해 숙청당했던 것이다. 문화대혁명의 역경속 등소평은 끝없는 계급투쟁, 노선투쟁, 당내투쟁으로 인해 경제가 붕괴의 변두리에 이른 중국의 파국을 보고는 더욱 모택동과는 다른 자기의 사상을 굳건히 하게 되었다.

등소평은 역사와 사회변혁의 동인(动因)이 생산력의 발전에 있다고 인식하고, 경제건설을 중국의 모든 일의 앞자리에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등소평은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결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더는 대규모적인 계급투쟁이 지속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현대 중국사회에서 계급투쟁은 종결되었고, 이제는 계급적 화해 · 협력을 통한 현대화와 경제발전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1976년 9월 9일, 모택동이 타계하고, 4인방이 숙청되고 과도인물인 화공봉이 실각 한 후에 복권되어 실권을 장악한 등소평은 자기의 이론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중국은 1978년 말에 있었던 중공 11차 3중전회를 계기로 하여 등소평이 이끄는 개혁개방의 시대에 들어섰다.

개혁개방은 우선은 사상의 해방을 전제로 해야 했다. 즉 모택동시대에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잡아가두어 놓은 사상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야만 했다. 1978년 5월 11일, 《광명일보》에 〈실천은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표준〉이라는 글이 게재되면서 비록 모택동이 직접 언급했던 것이거나 직접 결정지은 것이라도 실천을 통해 진리가 아님이 검증되면 그런 모택동의 말이나 결정도 따를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무릇 모택동이 말한 것이나, 무릇 모택동이 결정한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화국봉식의 경직된 논리의 금구를 터쳐 놓았던 것이다. 바로 이런 사상해방의 이론적 준비 작업을 거쳐 1978년 12월 11차 3중 전회가 소집되었다. 이 회의의 소집은 중국에서 사업의 중점을 “계급투쟁을 중심으로 삼던데로”부터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삼아 개혁개방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는데로” 전향하게 되었다. 이는 비단 경제정책의 조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정책의 변화를 위해 전제를 마련하여 주었다.

1979년 10월, 중국문예일군 제 4차대표대회(全国文代会)가 북경에서 개최되었는데, 등소평은 당중앙, 국무원을 대표하여 이 대회에 축사를 하였다. 이 축사에서 등소평은 중국공산당의 문화정책에 대해 중대한 조정을 했다. 등소평은 “문예가 정치에 종속되지는 이런 구호를 앞으로는 더는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지적했고, 또한 “문예사업에 대한 당의령도는 결코 명령이나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며, 문학예술이 임의적이거나 구체적이거나 직접적인 정치임무에 종속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예술의 특징과 발전법칙에 좇아 문예일군들이 문학예술을 부단히 반영시키고 부단히 그 수준을 향상시켜 우리 위대한 인민과 위대한 시대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수한 문학예술 작품을 창작해내고 표현예술의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양(周扬)도 이 대회에서 〈지난날을 잊고 앞날을 맞으면서 사회주의 새로운 시기의 문학예술을 변형시키자〉는 제목으로 연설하였다. 주양은 이 연설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30년래 중국에서 문예사업을 발전시키는 면에 있어서의 정면적인 경험과 반면적인 교훈을 총화하면서 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첫째는 문예와 정치의 관계문제인데 여기에는 당이 어떻게 문예사업을 지도하겠는가 하는 문제도 내포되어 있다. 둘째는 문예와 인민생활 사이의 관계문제인데, 예술실천에 있어서는 문예창작에서의 사실주의문제였다. 셋째는 문예분야에서의 전통계승과 혁신의 문제인데, 주로는 추진출신(推陈出新), 고위금용(古为今用), 양위중용(洋为中用)의 방침문제에 대한 것이었다. 이 대회는 또 예술 민주, 예술 자유와

작가, 예술가 사이의 문제도 적잖게 언급되었으며 작가, 예술가들에게 일정한 창작자유와 예술민주를 부여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중국의 문예의 부흥을 위하여 적극적인 정치환경과 사회적 조건을 마련해주었는바,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 조건하에서 문화분야와 정치분야가 상대적으로 분리되기 시작한 표징의 하나이며, 중국 당대 문화정책사상에서의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모택동시대의 극좌적인 문화정책이 해체된 이후 직면하게 된 것은 새로운 문예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이는 아주 어렵고 복잡한 과정으로서 중국에서는 아직도 진행과정 중에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중국공산당과 국가에서 이끄는 위로부터 아래로의 개혁과 개방이었으며 이 개혁개방의 총설계사는 바로 등소평이었다. 등소평이 개혁개방을 통해 이룩하려고 했던 “중국적 사회주의”는 “1개의 중심(경제발전)과 2개의 기본점(개혁개방과 4개 기본원칙의 견지)”으로 요약할 수 있다.¹⁾ 중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내적으로 불합리한 일부 체제들을 개혁하고 대외적으로는 문호를 개방해야 하지만 동시에 이런 개혁개방은 반드시 중국공산당의 령도, 사회주의도로, 무산계급독재,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을 견지하는 전제하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등소평시대의 문화정책은 바로 이 “중국적 사회주의”라는 이 “원정책(元政策)”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까닭에 등소평시대의 문화정책은 “극단적인 민주화”, “무정부주의적 사상”, “전반 서방화” 등 4개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사상문화사조를 견결히 배격하였다. 개혁개방 초기에 바로 이런 문화정책에 입각해 위경생(魏京生, 1950-)²⁾과 같은 현존 질서와 체제를 위협하는 인물들을 체포하고, 북경 “서단 민주 벽(西单民主墙)”을 규제하는 동시에 1978년 헌법에서 보장된 4대자유, 즉 대명(大明), 대방(大放), 대변론(大辩论), 대자보(大字报)의 규정을 철폐하였다.

등소평에 의해 “자산계급자유화”의 대표적 인물로 지명비판을 받은 교육문화계의 대표적 인물들로는 방려지(方励之)³⁾, 왕약망(王若望)⁴⁾, 유빈안(刘宾雁)⁵⁾등이다. 이 중에서

1)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를 건설하자〉, 《등소평문선》(상) 범우사, 1994년, 제96-101쪽을 참조.
 2) 위경생은 1978년 12월에 〈제5의 현대화-민주 및 기타(第五个现代化：民主及其他)〉라는 제목의 대자보(大字报)를 북경 서단의 “민주 벽(民主墙)”에 붙여언론자유를 요구하고 정치상에서 민주개혁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여 등소평의 노여움을 샀다. 1979년 3월 29일, 위경생은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다가 석방되어 나오기도 하고 또 다시 갇히기도 하면서 오랫동안 감옥살이와 감시 속에 있다가 1997년 11월 21일 미국에 건너갔다. 陈劲松 《民主斗士-魏京生传》, 太平洋国际出版有限公司, 1998年版을 참조하라.
 3) 방려지는 1955년에 중국공산당에 입당하였다. 1984년 9월에 중국과학기술대학 부교장으로 있었는데,

방려지만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 그는 “맑스주의를 때 지난 것,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몰락할 것”⁶⁾이라고 단언했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인신이 침해 받지 않을 자유”와 “중국에서 서방식 민주주의를 실시해야 한다”⁷⁾고 주장했고, “중국공산당은 인민들의 신임을 상실했고 그 유일한 출로는 다른 조직이 정권을 잡게 되는 것”⁸⁾이라고 했다. 이처럼 방려지는 등소평이 제기한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가 반드시 견지해야 할 4개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등소평은 4개 기본원칙을 견지하는데 위배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직위가 높던 낮은 추호도 안면을 보지 않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를테면 등소평은 중국좌익작련맹과 연안시절부터 중국공산당의 문예계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던 주양(周扬, 1908-1989)이 1980년대 초반에 휴머니즘 문제와 “자기소외”⁹⁾이론을 들고 나오자 즉각 이를 정면으로 반격하였다.¹⁰⁾ 등소평은 주양이 자산계급적 휴머니즘과 사회주의적인 휴머니즘을 혼동하는 것은 4개 기본원칙을 수호하는데 불리하고, 자기소외를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그것을 사회주의에까지 확장시키는 것은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는데 방해작용을 한다고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1983년 10월 주양은 부득이 자기가 무책임하게 이런 민감한 문제를 취급했다는 자아비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주양만이 아니라 호요방 같은 중공 당내의 최고위층 지도자들 속에도 사상 의식 형태나 문화 분야에 대해 비교적 관용적으로 대하면서 심지어 급진적인 민주파들이 제기하는 정치개혁에 대해서도 동조를 보내는 호요방 같은 이들도 있었다. 등소평을 비롯한 당내의 원로들은 이런 경향도 가만히 놔두려고 하지 않았다. 특히 안휘 합비에

제작 기간에 여러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자산계급 자유화”를 고취하고 중국공산당의 평도를 부정하였으며 사회주의체도를 부정하였다. 그는 결국 학생들을 선동하여 소요를 일으키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1987년 당적을 박탈당했고, 중국과학기술대학 부교장직도 면직당했다. 1989년 북경에서 발생한 동란에서 저지른 선동선전죄로 공직을 박탈당하고 미국대사관에 몸을 숨겼다가 미국으로 망명하였다.

4) 왕약방은 1937년에 중국공산당에 가입했다. 중국작가협회 이사, 상해시 작가협회 이사로 있었다. 1979년부터 그는 여러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4개 기본원칙을 반대하고 자산계급자유화를 고취했다. 1987년 1월에 당적을 박탈당했다.

5) 유빈안은 1944년에 중국공산당에 가입했다. 중국작가협회 부주석, 인민일보사 기자로 있었다. 연설이나 문학작품들을 통해 공개적으로 4개 기본원칙을 반대하고 자산계급자유화를 고취했다. 1987년 1월에 당적을 박탈당했다.

6) <마르크스주의의 몰락은 필연적>, 《중국,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예음 도서출판, 1992년, 제58-68쪽 참조.

7) <민주주의 개혁과 개방에 대하여> 동상서, 제28-29쪽을 참조.

8) <등소평과 모택동, 무엇이 다른가>, 동상서, 제165쪽을 참조.

9) 중국에서는 자기소외를 이화(異化)라고 번역했음.

10) <조직전선과 사상전선에 있어서 당의 절실한 문제>, 《등소평문선》(상), 범우사, 1994년, 제72-73쪽.

서 중국과학기술대학 학생들의 소요사건 일어난 이후 등소평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런 사태에 민감하게 대응했다. 1985년 5월과 6월에 등소평은 “자산계급 자유화를 하는 것은 자본주의 길로 나가는 것이다”¹¹⁾고 엄정하게 경고했고, 1986년 “자산계급의 자유화에 대한 반대기치를 선명히 하자”고 대성질호했다. 등소평이 이처럼 자산계급 자유화를 질시하고 견결히 배격한 것은 자산계급자유화가 개혁개방을 할 수 있는 전제적 조건인 중국 국내의 안정, 단결을 파괴한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는 민주주의는 자산계급의 민주주의를 그대로 옮겨 올수는 없습니다. 3권분립 등의 것은 할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미국의 집권자들을 비판합니다. 그들에게는 사실상 3개 정부가 있다고 말입니다. 물론 미국 자산계급이 대외적으로 이 방법을 통해 다른 나라를 상대하지만 대내적으로 자기들끼리도 싸웁니다. 번거롭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우리는 쓸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길을 걸어야 합니다.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중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온통 어지럽고 혼란하여 흩어진 모래알 같으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지난날 제국주의들이 우리를 능욕하였는데, 우리가 흩어진 모래알 같았기 때문입니다.”¹²⁾

등소평의 주장중에서 가장 눈을 끄는 것은 또한 안정에 대한 집착이다. 《등소평문선》을 보면 개혁개방 초기로부터 1989년 5월 천안문사태에 이르기까지의 연설들이나 지시들 중에서 <세계평화를 지키며 국내건설에 힘쓰자>(1984), <세계정세를 안정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1984), <평화와 발전은 당대 세계의 두가지 커다란 문제이다>(1985), <중국과 인도의 우의를 증진하고 남남합작을 강화하자>(1982), <이상과 기술에 의거해야만 단결할 수 있다>(1985) <평화공존 5원칙은 큰 생명력을 갖고 있다>(1984), <확고한 신념으로 인민들을 단결시키자>(1986), <안정된 환경이 없으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없다>(1987), <지도력 있고 질서 있는 사회주의를 건설하자>(1987),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은 안정뿐이다>(1989), <중국은 혼란을 용인하지 않는다>(1989),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자>(1984), <중화민족 전체의 대단결을 이룩하자>(1986) 등 수많은 세계평화와 국내의 안정, 단결을 추구했음을 볼 수 있다.

11) <자산계급자유화를 하는 것은 자본주의 길로 나가는 것이다>, 《등소평문선》(상), 범우사, 1994년, 제179-181쪽을 참조.

12) <자산계급의 자유화에 대한 반대 기치를 선명히 하자>, 《등소평문선》(하) 범우사, 1994년, 제22-26쪽.

그것은 평화로운 국제환경과 안정된 국내환경은 개방개방을 통한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을 다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적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등소평의 이론중에서 “안정수호사유(维稳思维)”는 아주 중요한 지위를 갖고 있다.

또 바로 이런 까닭에 등소평은 경제개혁을 중점으로 하면서 정치개혁은 차후로 미루었던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등소평을 비롯한 중국공산당 지도층의 원로들의 개인 경험과 전반 중화민족의 역사적경험이 많은 작용을 했다고 사료된다. 등소평을 비롯한 원로들은 분열과 혼란으로 점철된 중국에서 한평생을 살아왔다. 특히 그들은 수백만명의 사망자와 엄청난 비극을 낳은 문화대혁명의 무질서에 대해 불타는 증오심을 갖고 있었다.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등소평을 비롯한 원로들은 그들의 체험으로부터 굳게 믿었다. 혼란의 두려움 때문에 등소평은 문화분야에 대해서는 일정한 자유와 민주를 보장해주면서도 엄하게 단속하면서 통제를 강화했다.

등소평시대의 중국에는 비록 “1중심, 2기본점”의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라는 권위주의적인 목소리도 있었지만, 민간의 지식분자들의 “자유, 민주”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여러가지 목소리가 어울려서 다원적이고 풍부한 문화정신의 전반 모습을 형성하였다. 다만 이 시기에 있어서 권위주의적인 목소리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중국 전반의 문화형태는 공명(共名)으로부터 무명(无名)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를테면 “1중심, 2기본점”의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라는 관변측의 권위주의적인 목소리에 대항하여 급진적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민간 지식인들의 목소리도 병존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1988년 6월에 중국에서 방영되어 많은 논란을 빚어낸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하상(河殇)》이다. 이를 통해 방려지, 엄가기 등 민주파 지식인들은 서구적 정치체제를 수용해 경제개혁과 더불어 과감한 정치개혁을 단행하는 것만이 중국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주장은 등소평, 진운 등 원로 정치인들을 자극한 반면에 정치, 경제의 동시개혁을 희망했던 호요방, 조자양 등 일부 차세대 지도자들로 부터는 오히려 지지와 성원을 받았는데, 중국공산당 최고 지도층 내부에도 중국의 개혁개방의 진로에 대해 부동하고 다원적인 견해가 공존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면 어느 쪽의 목소리가 중국의 실정에 부합되었는가? 어느 주장이 중국의 실정에 부합되었는가? 실천은 등소평의 이론이 중국의 실정에 부합되었음을 증명하였다.

지난 세기 80년대 중국은 물론이고 소련이나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모두 기존 사

회주의 체제와 이념의 붕괴라는 보편적인 도전에 직면했다. 그런데 왜 소련과 중국은 다른 길로 가게 되었는가? 즉 왜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른바 대붕괴로 귀착될 수밖에 없었고, 중국에서는 중국공산당의 지배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시장경제와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전략이 성공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등소평의 “1중심, 2기본점”으로 귀납할 수 있는, 개혁개방의 총설계사 등소평의 개혁개방이론의 성공이고 승리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성공과 승리를 가져오기까지 등소평은 호요방, 조자양 같은 사람들과 바로 “1중심, 2기본점”이라는 이 점에서 거둬 불협화음을 벗어내기도 했으며, 연거푸 2년 사이에 자기가 선택했던 중국공산당 총서기들인 호요방, 조자양을 연속 경질시키는 인사변동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탱크와 소총으로 대학생들의 소요를 진압하는 위협천만한 진압작전까지 불사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중국의 개혁개방의 순조로운 진행과 경제적이 번영은 진압의 산물이라고도 결론 지어 말하기도 한다.

등소평의 개혁개방노선의 성공과 승리는 당시 소련의 고르바초프와의 비교를 통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1989년 5, 6월 천안문광장에서의 대학생들의 단식농성이 한창 진행중이었던 당시만 해도 중국을 포함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고르바초프가 추진하는 페레스트로이카가 소련을 중국보다 정치적으로 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훨씬 앞서 나가는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러나 지난 20여년동안에 발생한 사실들은 그러한 예측을 완전히 뒤엎어 버렸다. 천안문사건 이후 미국에 망명한 유빈안, 왕단, 유재복 등 중국의 민주파 인사들은 중국의 정치체도가 2년 내에 붕괴될 것이라고 단정하였고, 그 당시 외국 매스컴들에서는 그와 같은 예측에 동조하는 분위가 넓게 퍼져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붕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992년 봄, 등소평의 “남방 순시 강화(南巡讲话)” 발표 이후 더 폭넓은 개혁개방의 시기를 맞아 해마다 경제성장률이 10% 좌우에 달하는 초고속성장을 계속하여 왔다. 이는 “공산당 독재하의 중국 정치체제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없다”고 한 급진 민주파들의 예상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경제적인 성장을 빼뜩한 눈길로 보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를테면 조자양의 정치비서를 담당했던 포통(包通) 같은 이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중국이 매우 고요한 가운데서 미국 다음으로 가는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하고 있다고 환호하고 있다. 나는 이것인 진실이라고 믿는다. 쿠빌라이의 쇠

발급 아래에서도 중국은 마르코 폴로가 직접 목도했던 변화한 천국이였다. 유명한 기자인 추도분(邹韬奋)선생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1920년 북양군벌의 통치 아래에서도 중국은 세번째로 큰 강대국이였으며 줄곧 독일과 일본보다 높았고, 미국과 영국 다음이었다고 한다. 당시 영국이 많은 식민지를 갖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고 만일 지금의 영토로 계산해 본다면, 북양군벌 시기의 중국경제는 공산당이 이끄는 오늘날에 뒤지지 않아 이미 세계의 두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을 것이다.”¹³⁾

등소평의 개혁개방이론의 성공과 승리를 긍정하든지 아니면 부정하든지를 떠나서 “경제개혁을 먼저 하고 정치개혁은 뒤로 미룬” 중국의 개혁개방의 성공과 승리는 “성공의 역설”과 “승리의 역설”을 안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에서의 정치개혁은 아직도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 점은 중국 개혁개방의 가장 중요한 개척자였던 전임 중국공산당 총서기 조자양의 유언을 통해서도 잘 볼 수 있다.

“1989년 자리에서 물러난 뒤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 따라 나는 중국정치체제 개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겼다. 과거에는 서구 선진국들이 실시하는 의회민주제에 대해 인민이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소련식의 사회주의국가가 실행한 대표대회제도라야 인민이 주인됨을 실현할 수 있는 형식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리 사회주의국가에서 실행한 민주제도는 완전히 형식에 치우쳐 있고 인민이 주인이 되지 못하며 소수, 심지어 개인이 통치하는 것이다. ……20세기에 나타났던 수십년간 서구 의회제도와 서로 대립했던 이른바 신흥 민주제도인 프롤레타리아 독재제도는 대다수 국가에서 이미 퇴장했다. 오히려 서구의 의회민주제가 그 생명력을 보여준다. 이 제도가 지금 찾을 수 있는 비교적 좋은, 더욱 충분히 민주를 구현할 수 있고 현대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또한 비교적 성숙한 제도인 것 같다. 지금은 아직 이것보다 더 좋은 제도를 찾을 수 없다.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실시한 것은 이러한 의회민주제도였다. 수십년동안 비교적 발전이 빨랐던 신흥국가들이 점차 의회민주제로 바뀌어가는 추세 역시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나는 이것이 절대 우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 선진국 중에 다른 제도를 실시한 나라가 하나도 없는가? 이는 국가가 현대화를 이루고, 시장경제, 현대문명을 실현하려면 정치제도는 반드시 의회민주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¹⁴⁾

13) 자오쯔양 지음/ 바오푸 정리 《국가의 죄수》, (한국)에버리치출판스, 2010년, 제41-42쪽.

4. 강택민 시대-무명(无名)상황속의 문화정책

강택민 시대는 등소평시대의 계승과 지속이었다. 1989년 6월의 천안문사태 이후에 중공 총서기가 된 강택민은 이런 선택만 할 수 있었다. 때문에 1992년 10월에 개최된 제14차 당대회에서 강택민이 발표한 보고에서 중공 지도층은 제2의 천안문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도 중국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지향한다고 선언하였다. 즉 개혁개방의 심화와 확대라는 방침을 명확히 제시했다. 그러나 제14차 당대회는 등소평의 위은사유(维稳思维)에 쫓아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조자양 시대보다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경제의 자유와 정치적 통제의 강화라는 이중성을 보여준 것은 어쩌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당과 정부체제를 유지하면서 제한된 범위 안에서 문화의 다원화와 자율화를 인정하였다. 이런 점에 있어서 강택민시대는 등소평시대에 비해 총체적으로 보다 심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리하여 중국의 문화형태는 더욱 무명(无名), 즉 다원적인 추세로 나아가기 시작하였다.

강택민시대의 사상문화의 흐름에서 주목되는 것은 흔히 “민주파”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급진적인 개혁파들의 “반전통”, “전면서구화”의 문화이념은 서서히 퇴조해 가고 그 대신에 중국 전통문화에 대한 긍정과 그에 따르는 민족주의, 애국주의가 공개적으로 그리고 대중적으로 확산되어 가기 시작했다.

지난 세기 90년대 중반 이후에 민족주의가 확산되기 시작한 배경에는 1989년 천안문사건과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를 통해 표출되기 시작한 사회주의에 대한 신앙위기와 이념적 공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외에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이룩한 급속한 경제적인 성장으로 인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중화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주장하려는 심리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1989년 6월 천안문사건 이후 중국의 지식계에는 이내 민주파들을 비판, 부정하면서 애국주의를 기치로 내세운 사람들이 나타났다. 1990년 초기, 중국에서 국가주의를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민족주의 논쟁을 촉발한 것은 《인민일보》에 실린 중국유학생 문적(闻迪)의 〈사회주의는 중국을 구할 수 있다〉¹⁵⁾는 글이었다. 그는 천안문사건 이후

14) 동상서 제43-44쪽.

15) 闻迪〈社会主义能够救中国〉, 《人民日报》1990年 1月15日.

해외로 도피한 운동지도부를 비판하는 한편, 현재의 정치엘리트가 서구화된 지식인이기 때문에 “국정(国情)”을 이해하지 못하며 실질적 사회생활에 대한 지식도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국가의 독립과 부강, 그리고 사회의 자유와 해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천안문사건 직전 친서구적 지식인 사이에 유행했던 반전통주의와 이택후(李泽厚), 방려지 등의 “전방위적인 서방화(全盘西化)”를 비판하면서, 1988년에 방영된 다큐멘터리 〈하상(河殇)〉을 “민족허무주의”로 비판했다.¹⁶⁾

문적(闻迪)이 해외 일부 중국유학생의 생각을 대표했다면 중국 국내에는 보다 강경한 주장이 나타났다. 중국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의 청년학자 하신(何新)은 1990년 6월, 천안문사건을 전후하여 방려지(方励之)와 같은 민주파 지식인들이 이른바 “자유와 민주”, “전반위적인 서방화”를 고취하여 나라를 혼란시키는 동란을 유발시킨 것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중국인이 스스로 죽지 않으려면, 그리고 준엄한 국제환경속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애국주의의 기치아래 단결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¹⁷⁾고 강조했다. 이른바 “하신현상(何新现象)”은 1989년 6월 4일 천안문사건 이후 여론과 청년 지식인을 중심으로 국가의식과 민족의식을 고양한 하나의 지적분수령이었다.

하신 같은 젊은 지식인들은 현실문제를 거론하는 가운데서 민족주의의 기치를 추켜올렸다면, 계선림(季羨林) 같은 직잡은 원로 지식인들은 중국 전통 문화의 특수성이나 가치성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중국문화의 우수성을 재발견하고, 이를 통해 중화민족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그것은 중국사회에 서학 대신에 국학을 숭배하는 지적 흐름이 형성되게 하였으며 80년대 중반 이후에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던 문화열(文化热)¹⁸⁾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켰다. 그리고 일부 신좌파계열의 지식인들은 모택동 사상을 재해석해 개혁개방에서 나타난 새로운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문화의 전환기에 중국이 살아나갈 수 있는 제3의 길을 모색하려고 했다.

16) 崔文华 《河殇论》，（北京）文化艺术出版社，1998年， 第87-88쪽을 참조.

17) 何新 〈我向你们的良知呼唤〉，《东方的复兴：中国现代化命运与前途》，（哈尔滨）黑龙江人民出版社，1991年.

18) 1990년대 초반, 당시 중국의 국학대사 라고 불렸던 계선림은 〈中国文化发展战略〉(1989), 〈东西方文化的转折点〉(1991), 〈再谈东方文化〉(1991), 〈关于“天人合一”思想的再思考〉(1993), 〈21世纪, 东方文化的时代〉(1993), 〈东方不亮, 西方亮〉(1995) 등 논문들을 연속 발표하여 중국 전통 문화 중의 정화들을 발굴하여 냈으며, 중국 전통문화 중의 알맹이들은 앞으로 인류문화에서 오히려 주류적인 가치를 갖게 될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서구문화의 우수한 알맹이들은 적극 가져와야 하겠지만 전방위적인 서구화는 이론상에서 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에서 이룩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상의 글들은 《东西文化论集》上, 下 经济日报出版社, 1997年版을 참조하라.

물론 1989년 6월 4일 천안문사건 이후 중국은 당과 정부적인 차원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1993년 중국 국가교육위원회는 “중국의 교육개혁과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집단주의 정신을 애국주의교육으로 수렴하기 시작했다. 애국주의 교육의 대상은 당연히 청소년이 중심이 되었고, 그 기조는 애국감정, 애국인식, 애국행위였다.

그리고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우호적으로 대하던 소련, 동유럽의 사회주의권이 해체된 이후 중국에 대해 경계하기 시작했다. 또 중국을 민주화에 완강히 저항하는 정치적으로 낙후된 권위주의, 독재국가로 비판하는 경향도 대두했다. 따라서 미국과 서방 세계는 인권과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공공연히 중국의 국내정치에 간섭하였다. 이와 같은 서방세계의 간섭과 비난에 대해 중국 내부에서도 반발이 확산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중국 젊은 세대들이 미국이나 서방의 발달한 문화를 동경하면서도 미국에 대한 지나친 순종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젊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미국에 대해 “중국은 노라고 말할 수 있다(中国可以说不!)”¹⁹⁾다고 하면서 미국과 과감하게 맞설 것을 주장하는 민족주의(중국에서는 애국주의라고 함)정서가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 중국 젊은 지식인들속에서의 애국주의열(爱国主义热)은 몇차례의 국제사건들을 거치면서 중국사회 저변으로 확산되었다. 그 첫번째 사건은 1996년의 조어도(钓鱼岛, 일본에서는 센카쿠 열도)열도를 둘러싼 중일간의 영토분쟁¹⁹⁾, 2003년 9월 18일 광둥성 주해에서 일본유람객들의 매춘관광사건²⁰⁾ 등으로 촉발된 반일정서, 두번째는 1999년 유고 벨그라드 중국대사관에 대한 미공군의 폭격사건²¹⁾으로 촉발된 반미시위 등을 거치면서 애국주의는 중국사회 전체로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이처럼 1990년 이후의 강택민시대에 중국사회의 저변에 널리 확산되기 시작한 민족주의, 애국주의 정서 역시 과거 5.4운동이래의 애국주의정서와 마찬가지로 민족문화의

19) 1996년 일본의 민족주의자집단이 조어도에 상륙하여 일본 주권을 상징하는 등대를 세우면서 중일간의 외교마찰로 비화되었다. 중국민중들은 이에 항의하여 반일시위를 벌였다.

20) 2003년9월 18일, 중국인들이 일제가 중국 동북을 침략한 72돛 국치일을 조용하게 지내고 있을 때, 수백명의 일본 남자들로만 조직된 관광단이 광둥성 주해의 한 오성급 호텔에서 수백명 중국 아가씨들을 불러다가 매춘을 했다. 이 사건이 매체를 통해 전 중국에 파다하게 퍼져나가면서 반일정서가 일파만 파로 크게 확산되었다.

21) 1999년5월 8일, 코스보문제에 유고와 폭격전을 수행 중이던 나토동맹군의 미군 비행기가 쓴 미사일 3개가 베오그라드에 있는 주유고 중국대사관건물에 명중되어 3명의 대사관원이 사망하고 대사관건물이 대량 파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미국은 이를 실수에 의해 오판이라고 했지만 중국정부는 중국을 의도적으로 겨냥한 도발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격분한 중국 대학생들이 북경주재 미국대사관에 물러가서 미국대사관에 돌을 던지며 강력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정체성 위기와 전면적인 서구화에 대한 반감에서 촉발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중국에서 나타난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는 1980년대에 급진적인 민주파나 개혁파들이 내걸었던 전방위적인 서방화에 대한 반감과 반작용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도 냉전이 끝난 후 세계 각국에서 보편적으로 재생하기 시작한 범세계적인 민족주의사조 역시 중국에서 민족주의, 애국주의를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중국 사회의식의 이런 변화는 필연적으로 문화정책과 도서출판·신문방송·문예창작 등 대중문화의 여러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 약 3백만부가 팔린 《중국은 노라고 말할 수 있다-포스트 냉전시대의 정치와 정감의 선택》²²⁾을 비롯한 “No시리즈(不系列)” 출판물과 《제3의 눈으로 본 중국》²³⁾, 《중국을 요마화한 그 배후》²⁴⁾, 《세계화 그림자 속의 중국의 길》²⁵⁾등을 포함한 민족주의를 주장한 책들은 오랫동안 중국도서 시장에서 불티나게 팔렸다. 이런 출판물들은 베스트셀러로 되어 수백만권이 팔리면서 중국 젊은이들 속에서 애국감정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를 계기로 1990년대에는 대중문화·텔레비전·오락·인터넷 등 대중문화와 대중전파매체가 정치적 동원과 결합되어 민족주의가 화려하게 등장했다. 이런 과정에서 중국의 유력한 문화예술인들도 당과 정부와 손잡고 작업하기도 했고, 적어도 1989년 6월 4일 천안문사건 이전처럼 저항하는 태도는 취하지 않았다. 예컨대 중국 영화의 거장 장예모(张艺谋) 감독은 개혁개방 초기부터 중국의 전통 문화나 사회현실 중의 누추한 면이나 병폐를 드러내거나 비판하는 《붉은 수수밭(红高粱)》·《높이 걸린 홍사초롱(大红灯笼高高挂)》·《추국의 송사(秋菊打官司)》 등 영화를 주로 만들어서 서방세계의 갈채를 받았다. 이런 점은 당시 중국의 문화를 관장했던 작가 겸 문화부 부장이었던 왕몽(王蒙) 같은 사람들의 선의적인 지지를 받기도 했고, 중국의 추한 모습을 드러낸 부분은 중국 검열 당국에 의해 삭제되기 일췌였다. 장예모가 1994년 “칸 영화제”에서 수상할 당시 중국 정부는 그의 수상식 참석을 막기도 했다. 그러나 2000년을 전후로 하여 그의 창작 경향은 달라져 그가 창작한 《진시황》 같은 영화는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을 대폭 긍정함으로써 중국 전통문화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을 크게 수정하였으며 암묵적으로 애국주의교양에 배합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중국에서는 장예모를 문화적 영웅으

로 추대하였고, 그는 중국정협의 위원이 되었으며, 한때 “정치적인 반항아”였던 장예모는 2008년 북경 올림픽 개막식의 총감독으로 화려하게 변신했다. 장예모처럼 중국의 적지 않은 문학예술가들은 1989년 6월 4일 천안문사건 이후에는 시각을 조정하고 입장을 바꾸면서 당과 정부와 협력하는 쪽을 선택하였다.

물론 중국 국내나 해외에 망명한 적잖은 중국 지식인들은 여전히 중국의 당과 정부와 비합작의 태도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날로 낮아지고 그 모습은 창백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이들의 목소리가 중국의 개혁개방의 심화, 발전으로 하여 날로 새롭게 변화해 가는 중국의 현실과는 판이하게 다르고, 또한 중국의 분열과 안정, 단결을 파괴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중국의 절대 다수 인민들의 이익과는 배치되기 때문이었다.

1989년 6월 4일 천안문사태 이후, 중국의 문화계에서 애국주의·민족주의 담론이 주류담론이 되어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였던 사실은 분명하다. 문학예술만 실례로 든다면 1990년 이후 “시장경제의 신속한 발전 그리고 이에 따라 대중들의 심미적 요구가 날로 다양화되어 갔고 또한 경직된 전통적인 선전방식에도 상응하게 변화가 일어나면서 당대문학사상에는 처음으로 무주조(无主潮)·무정향(无定向)·무공명(无功名)의 현상이 나타났으며, 여러가지 문학들이 동시에 방존하면서 다원적인 가치취향을 표달하게 되었다. 예컨대 주선률을 선전하는 문예작품들은 흔히 정부부문의 경제적 지원과 국가적 차원의 문학예술상을 통해 그 가치를 확인하였다면 소비형의 문학작품들은 대중문화시장의 관측성공을 그 목적으로 하였으며, 순문학창작은 특정된 유타리 안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인정을 받거나 특정된 독자군의 환영을 받는 것을 표징으로 삼았다. 다중병존(多种并存)의 시대적 주제가 상대적으로 다차원의 복합문화구조를 이루었기 때문에 비로소 문학의 다추세의 국면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무명상황속의 중국문학예술의 이런 다주제, 다풍격, 다원가치의 양상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사례로는 2000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고행건(高行健, 1940-)을 들 수 있다. 고행건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문학예술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서구의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학예술이론과 작품들을 중국에 소개하고 또한 본인이 스스로 연극, 소설 등 문예분야에서 중국적인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한 작가이다.

22) 宋强, 张藏藏, 乔边 《中国可以说不: 冷战后时代的政治与情感抉择》中国工商联合出版社, 1996년.

23) 王山 《第三只眼睛看中国》, (太原) 山西人民出版社, 1994년.

24) 李希光, 刘康 《妖魔化中国的背后》,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96년.

25) 方宁, 宋强, 王小康 《全球化阴影下的中国之路》,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96년.

5. 호금도 시대 - 정치체제전환기의 문화정책

세상만사는 새옹지마(塞翁之馬), 얻으면 잃게 되고 잃으면 얻게 되는 법이다. 등소평이 이끌고 강택민시대에 와서 기본상 성공의 변두리에 이른 30년 동안에 걸친 중국의 개혁개방이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인가?

등소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이론과 선부론(先富論)에 힘입어 중국은 동남연해지구를 비롯하여 빠른 시간 내에 현대화를 실현하여 오늘날에는 유럽과 일본을 제치고 국민생산총액이 미국 버금가는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였으며, 세계의 공장지로 변화하였다. 이리하여 낙후되었던 중국을 국부민강(國富民強)의 강력한 대국으로 이룩하려 했던 등소평의 꿈은 짧은 시간 내에 현실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개혁개방 30년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업적이었고 성공이었다.

그러나 “언음의 역설” 혹은 “성공의 역설”은 중국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지역과 사람 사이의 현격한 빈부의 격차²⁶⁾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범죄 및 민중집단폭력사건의 증가 추세²⁷⁾, 그리고 세계공장지에서 수요하는 대량의 원자재와 대폭 증가된 산업오염으로 인한 생태환경 파괴 등이다.²⁸⁾ 이밖에도 간부대오의 보편적인 부패현상과 국민들의 의식 속에 팽배해진 배금주의, 이기주의 역시 많은 사회문제들을 양산해 내고 있는 실정이다. 개혁개방의 안정된 국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랫동안 미루어 두었던 정치체제개혁 역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 속제는 이제는 더욱 미루어두기 어렵다는 견해가 분분하다.

비유를 할 것 같으면 30년전 등소평이 “현대화된 강국 건설”을 위해 “건너야 할 강”의 방향을 정하고(이를테면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정함), 수십 알은 곳을 찾아 징검다리

26) 한국의 삼성경제연구소는 “2006년 중국보고서”에서 “중국 전체 인구의 0.3%인 390만명이 전체 은행 예금의 3분의 1 이상, 전체 국민소득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지극히 소수 사람들에게만 재부가 집중되었다는 점은 이런 통계수자대로만이 아니라 중국의 백성들이 피부로 실감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부터 중국에는 “고기요리를 담은 사발을 들고 앉아서 투정을 부린다(端着肉碗罵娘)”는 유행어가 파다하게 퍼졌었는데, 이는 중국인들이 소득의 현격한 양극화로 인해 생겨난 상대적인 빈곤감이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보편적으로 갖고 있음을 잘 설명해 준다.

27) 2000년 이후 소득 양극화에 따라 이른바 “벼락부자(暴富) 미워하는” 사회적 심리가 팽배하여 부자를 미워하는 현상은 위험수위에 올랐다. 중국공안부 형사경찰국 통계에 의하면 2004년 3,863건의 인질납치사건이 발생했으나 범인체포율이 75%에 머물렀다. 납치대상은 부유한 기업가와 유명 인사, 부유한 가정의 자녀 등이었다. 2005년 이후에는 부유한 가정의 자식들이 다니는 유치원이나 초·중·고 등에 무작정 뛰어들어가 닦치는대로 죽이는 “묻지 말아 살인 사건”이 속출하였다. 복건성으로부터 전국에 확산되어 전 중국의 수많은 사람들을 공포속에 몰아넣기도 했다.

28) 산업폐기물의 증가로 수질오염이 엄중하여지는 실례로 태호의 전면 오염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농경지와 목축지의 확대도 사막화가 날로 엄중하여 지고 있다.

를 만들어 일부 지역과 일부 사람들이 먼저 건너도록 하였고(선부론), 그 후임인 강택민은 그곳에 시멘트로 된 다리를 부설하여 보다 많은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하였다면(서부개발), 오늘날의 호금도는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건널 수 있도록 기존다리를 보수, 확장함은 물론 여러개의 새로운 다리를 건설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동북 및 중부지역 개발, 3농문제의 해결 등)

호금도가 이끄는 중국의 당과 정부는 바로 이런 중대하고 절박한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명을 안고 역사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다. 이런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호금도는 2003년 중국공산당 제16기 3중 전회에서 이른바 “과학적 발전관”을 제기하고, 그 이듬해인 2004년 9월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16기 4중 전회에서 “화해사회(和諧社會)”라는 구호를 제기했다.

개혁개방의 심화와 발전은 중국의 경제구조와 사회구조를 크게 개변시켰고 따라서 이는 중국에서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약화추세가 나타나게 하였으며 그 대안으로 애국주의(민족주의)가 출현하였다. 그러나 이 애국주의는 중국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이데올로기로서가 아니라 보완적이 이데올로기로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애국주의(민족주의)란 소위 “양날의 칼”로서 대외적으로 서구의 민주화의 압력 등에 대처하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국내적으로 56개 민족을 아우르고 서장, 신장 등 지역에서의 소수민족의 분열주의 운동을 정당화하거나 부추길 수 있는 여지를 지님으로써 이중성과 복잡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즉 애국주의(민족주의)는 보완을 넘어서 대안 이데올로기를 구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2000년을 넘어서면서 중국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을 중심으로 한 과거의 “단일 이데올로기”에서 기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더해 애국주의, 전통문화사상, 집단주의 등 복수의 “대안 이데올로기”가 가미된 상태이다. 동시에 서방식민주의를 지향하는 정치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 역시 중국에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다. 이처럼 2000년 이후 중국은 진장으로 다원적 시대적인 주제를 갖고 있는 무명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다만 이런 다원적인 이데올로기 관도 중에서도 일시적으로 주선물(공명)을 추구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애국주의와 결합되어있는 전통문화사상의 복귀현상이다.

전통문화사상의 복귀현상은 2000년 이후에 중국에서 아주 선명하게 나타난 “공자(孔子)의 부활”이다. 1919년 “5.4신문화운동”을 그 기점으로 하는 중국 현대사는 “공자점

을 부수자”는 외침소리로부터 시작되었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타도대상인 봉건잔재 제1호”였던 공자가 다시 “중국의 성인(圣人)과 선사(先师)”로 화려하게 부활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공자 사상의 핵심은 중용(中庸)이다. 즉 공자는 한쪽에 너무 편향하지 않고 여럿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용이며 바로 이런 까닭에 공자는 “화위귀(和为贵)”라고 했다. 공자가 창시한 유교사상은 또한 권위에 대한 경위, 위계 관계의 복종 등 유교의 가치도 지금의 현존질서를 바로 잡고 공고히 하는데 부합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공자의 유가사상은 “사회주의 화해사회”를 실현하는 하는데 있어서 이념적인 대안으로서는 안성맞춤이라고 할 수 있다. 2천여년전 한문제(汉武帝)가 동중서(董仲舒)의 의견을 받아들여 “백가를 모두 버리고 유가만을 존중하는(罢黜百家, 独尊儒术)” 문화정책을 수립한 것은 바로 공자의 유가가 기존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이데올로기였기 때문이다. 2천여년이 지난 오늘날 호금도를 위수로 하는 중국지도부가 공자를 부활시킨 의도 역시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공자가 부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호금도였다. 그는 2005년 3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에서 화해사회론을 제시하면서 “조화로운이 소중한 것이다(和为贵)”라는 공자의 말을 거론했다. 이밖에도 호금도 주석이 집권한 후에 내세운 “이인위본(以人为本)”은 공자, 특히 맹자가 주창했던 민본주의(民本主义)와 맥을 같이 한다. 맹자는 “민이 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고, 임금은 가볍다(民为贵, 社稷次之, 君为轻)”라고 하면서 민(民)의 귀중함을 주장했는데, 이는 “이인위본(以人为本)”과 맥을 같이 한다. 그리고 호금도가 내놓은 “사회주의 화해사회론”은 “적은 것은 걱정되지 않으나 고르지 않은 것이 걱정이다(不患寡而患不均)”이라고 한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말과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다.

중국정부는 2005년 9월 28일 공자 탄생 2556주년을 맞아 공자의 고향 산둥성 곡부에서 융성한 기념행사를 열었다. 중국 국영 중앙방송(CCTV)은 사상 처음으로 공자 제사 모습을 4시간 이상 생중계했다. 지방 행사로 근근히 명맥을 이어오던 공자 문화제는 국가차원의 행사로 승격되었고, 공식적인 공자의 모습을 담은 공자 표준상도 제정되었다. 중국 전역에 《논어》낭송 대회가 개최되는 한편, 북경에서 200명이 참가한 대규모 공자 심포지움도 열렸다. 이에 앞서 중국사회과학원은 2005년 6월 유교연구중심을 설립했다. 석달 뒤 중국인민대학은 공자사상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국학원을 세웠다. 사회주의 국가 중국에서 공자 사상이 국학으로 격상된 순간이었다. 중국인민대학은 1937년 설립된 이후 사회주의 이념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적 메카였다. 중국에서 공자

의 이름을 빌린 연구소나 학과는 국내에서 이미 수십개 대학에서 개설되었고, 외국에도 속속 설립되고 있는 중이다. 이를테면 한국의 경우에는 충북대학, 부경대학 등에 이미 중국 관변측에서 자금을 투자하여 공자학원이 설립되었다.

최근에 들어와서 중국 국민들 사이에는 《논어》 등 사서삼경을 옹구리에 끼고 다니는 유교 유행도 조성되었다. 중국 중앙방송(CCTV)은 2006년 10월 <백가강단(百家讲坛)> 프로그램에서 북경사범대학 여교수 우단(于丹)을 초빙해 《논어》 강의를 방송했다. 우단교수의 강의는 프로그램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는 등 화제를 뿌렸다. 또 방송의 촉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우단 교수의 강의 내용을 묶은 책 《논어심득(论语心得)》은 무려 400만부 이상이 팔려나가는 베스트셀러로 우뚝 섰고 우단 교수는 돈방석에 앉았다. 등소평이 “안정이 모든 것을 압도한다(稳定压倒一切)”는 이른바 “위은사유(维稳思维)”의 연장선속에서 안정, 단결을 도모하는 호금도를 위수로 하는 중국의 지도층은 기존질서 파괴 대신 기존질서를 유지시키는 공자의 유가사상이 반가운 존재일 수밖에 없다. 공자의 유가사상이 호금도 시대의 중국에서 사회 안정이라는 시대의 요청과 함께 만개한 것이다.

시대적인 요청은 유가사상의 부활에만 머물지 않고 노자(老子)·장자(庄子) 등 도가사상(道家思想)도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역시 우단 교수의 방송강의를 바탕으로 2007년 3월 출간된 《장자심득(庄子心得)》은 중국출판사상 처음으로 100만부나 찍어 전국에 동시에 발행하는 기록을 남겼다. 한달 후인 2007년 4월 22일, 중국 섬서성 서안과 홍콩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도덕경 국제포럼>이 열렸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가경림(贾庆林)은 “세계의 보편적 정신적 자산인 《도덕경》은 중도적이며 평화적인 원칙이 중국이 건설하려는 화해사회의 지침이 될 수 있다”면서 “《도덕경》의 가르침을 중국의 현실사회발전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지혜와 힘을 모아 사회주의 화해사회건설에 공헌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공자·노자·장자의 부활에 이어서 중국고대 사상의 재등장은 묵자(墨家)에까지 이어졌다. 중국의 시사 주간 《남풍창(南风窗)》은 2007년 2월 22일 “2300년 전 전국시대 묵자(墨子)의 사상을 재해석해야 한다”며 “중국 공산당 제4대 지도부가 제창한 창신형(创新型) 국가, 화해사회, 화평굴기(和平崛起), 절약형 사회 등 국가 철학의 정신사상적 원류를 묵자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글에서는 창신형의 “과학적 발전관(科学发展观)”의 사상적 원류를 묵자사상에서 찾을 수 있고, 또한 “사회주의 화해사회(和谐社会)”의 원류 역시 서로 아끼고 사랑할 것을 강조한 묵자사상 중의 “겸애

(兼爱)”에서 찾을 수 있으며, 경제발전 과정 중에서의 과도한 개발과 자원낭비를 경계하는 절약형 사회, 지속 가능한 사회의 목소리를 목자의 절약을 강조한 주장에서 찾을 수 있고, 전쟁을 피하고 평화롭게 경제성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화평궤기(和平崛起)의 원류는 평화를 강조한 목가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중국 전통문화 가치의 재발견 작업은 철학이나 사상 분야만이 아니라 문학, 민속, 의학 등 여러 분야로 확산되었다. 이를테면 하문대학 역사학부의 역중천(易中天) 교수의 <설삼국(说三国)>도 역시 중앙방송국의 <백가강단>에서 중요한 인기프로그램이었으며 그의 이런 강의원고들을 묶은 책들이나 CD는 전국적으로 대량 발행되어 그는 2008년 전국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번 학자의 반열에 올랐다. 이밖에도 상해회고학원의 교수 여추여(余秋雨)는 중국 전통문화를 재해석하여 그속에서 긍정적인 가치를 재발견해 낸 《문화고려(文化苦旅)》, 《산거필기(山居笔记)》 등 문화수필 창작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여추여봄(余秋雨热)”을 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2000년을 전후하여 중국의 전통문화를 긍정하는 조류는 1980년대에는 방려지(方励之)·유빈안(刘宾雁)·소소강(苏晓康)·고행건(高行健) 같은 지식인들이 중국 전통문화를 부정하고 “전반서화(全盘西化)”를 부르짖었던 상황과는 판이한 대조를 이룬다. 이는 중국의 많은 지식인들이 이미 중국의 당과 정부와 이데올로기 면에서 같이 호응하면서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사회주의 화해사회”를 건설하는데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지금 중국에서는 사상과 문화의 주도세력이 정부와 관방으로부터 민간과 대학으로 이동되어 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이 양자 사이의 조화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점은 모택동 시대는 물론이고 등소평시대와 강택민시대에서도 역시 볼 수 없었던 문화현상이다. 이는 현재의 호금도를 위수로 하는 중국의 지도층이 중국 국내의 많은 지식인들로부터 보편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중국 전통문화에 대해 긍정과 이로부터 이데올로기의 대안을 찾으려는 작업은 국내적으로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적극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외 대학들이나 연구기관에 “공자학원”을 대량 설립하는 것 외에도 전세계적인 범위에서 중국고대의 문화경전을 번역하여 소개하는 작업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 국가출판총서로부터 기획하고 인민문학출판사, 외문출판사 등 중국의 명문 출판사에서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대중화문고(大中华文库)》의 세계적 범위에서의 출판, 발행이다. 《대중화문고(大中华文库)》에는 《논어》·《맹자》·《도덕경》·《장자》

·《주역》같은 유가, 도가 등 사상경전으로부터 《사기》·《문심조룡》·《당시송사》·《손자병법》·《홍루몽》·《황제내경》·《본초강목》 등 문·사·철·병·의 등 중국 전통문화의 거의 모든 경전들이 망라되어 있다.

다만 아직도 중국이나 국외의 적잖은 사람들은 부활시킨 공자의 유가사상을 비롯한 중국의 전통 사상이나 문화가 이를 통해 중국의 현재와 미래를 장기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의 대안이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지켜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중국의 전통사상이나 문화속에서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는 구체적인 이론과 방도를 찾아낼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스럽다는 태도를 갖고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이들도 적지 않다.

비록 아직까지도 중국에서는 정치개혁이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치개혁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정치는 분명히체제의전환기에들어섰다. 이를테면 전 중국 국가출판사 서장 두아오정은 《국가의 죄수》서문에서 “자오쯔양(赵紫阳)이 물러난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의 정치개혁이 따라주지 못한데 있다. 우리의 개혁은 줄곧 파행적이었다. 우리는 자오쯔양과 후야오방을 따라 배워 그들의 유지를 계승하여 정치체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²⁹⁾고 역설했다.

6. 마무리는 말

중국 미래에 대해 낙관론과 의문론이 공존하고 있지만, 지금의 견지에서 볼 때 전자가 상당한 우세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테면 2008년에 세계은행 부총재로 부임한 림의부(林毅夫) 전 북경대학 교수는 “지금의 중국은 200년 역사 이래 가장 희망이 있는 시대”라고 강조하면서 “중국은 장래 어느날 ‘한당상세(汉唐盛世)’와 같은 전 세계최강의 국가가 될 수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찾았다.

“첫째, 중국 각 계층의 지도자들이 모두 상황을 잘 파악하여 문제가 어디에 있고, 기회 또한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으며, 정책 결정 과정이 매우 실사구시적이라는 점.

둘째, 문제 고려 시 기본적으로 경제발전 추진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

셋째, 많은 외국 국민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자기가 잘못되었을 경우 사회를 탓하고 정부를 원망하며 정부 지원만을 기다리는데 비해, 중국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자기 발전

29) 자오쯔양 지음/ 바오푸 정리 《국가의 죄수》, 에버리치출판사, 2010년, 제25쪽.

은 자기 책임으로 인식하고 자기를 개선하고 자신을 초월하고자 노력한다는 점.

넷째, 중국은 발전중에 있는 국가로서 발전의 여지가 아직도 크고, 산업구조나 기술 재고 면에서도 아직 여지가 많다는 점.

다섯째, 중국은 아주 큰 시장, 특히 전 세계에서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시장을 갖고 있다는 점으로, 이는 중국 내국인들에게 많은 발전 공간을 제공하고 외국자본, 기업들을 계속 끌어 들이고 있음.

이러한 중국의 지도자, 국민, 발전 단계, 대국의 장점들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문화 대혁명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모두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³⁰⁾

중국 국내에도 의문론은 존재한다. 분명하게 문자화되어 나타난 것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국외에서는 의문론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테면 한국의 전성흥은 중국의 체제변화에 대해 전망하면서 향후 중국 정치체제의 변동을 (1) 구소련과 같은 체제 붕괴 및 국가 와해 (2) 아래로부터의 저항에 의한 “민주화”의 실현 (3) 위로부터의 개혁을 통한 “당 주도의 탈권위주의화” 내지는 “제3의 길” 모색 (4) 협력주의국가(合作主義國家), 혼합민주정치(混合民主政體), 점진민주로(增量民主) (5) 현존 체제의 존속 등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³¹⁾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향후 중국사회의 안정은 잠재된 경제위기의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지, 지도부가 단결을 유지하고 사회불안정 요인이 되는 각종 ‘민생문제’를 적절히 잘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도건설’을 통해 통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등 국가 및 사회의 위기관리를 포함한 공산당의 집권능력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과연 일당체제의 존속을 통한 중국식 정치발전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래의 의문으로 남는다.”³²⁾

한국의 고려대학교의 서진영 교수는 이상의 의문론보다는 보다 명료하게 중국 향후의 숙제로 남아 있는 정치체제의 개혁을 진단하기도 했다. 서진영 교수는 《21세기의 중국정치》라는 저서에서 입론의 전제로 30년의 개혁개방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정

30) 송승엽 《중국 개혁개방 30년》, 휴먼비전, 제235-236쪽에서 재인용.

31) 전선홍 편 《체제전환의 중국정치》, 에베리치홀딩스, 2010년, 제345-350쪽을 참조하라.

32) 전선홍 편 《체제전환의 중국정치》, 에베리치홀딩스, 2010년, 제351쪽.

도의 경제적인 성공”을 내세우면서도 이른바 “중국적 사회주의의 성공이 중국적 사회주의의 생존을 위협하는 ‘성공의 역설’을 규명하려는 것”을 주제로 삼고 향후 21세기 중국정치의 앞날을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공의 역설’은 중국만의 특수한 현상은 아니다. 박정희 시대의 한국, 장경국(蔣經國) 시대의 대만과 같은 개발독재국가, 또는 권위주의적 발전국가들이 중국보다 먼저 경험했던 역사적 현상이다. 경제발전을 위해 정치안정이 필요하다면서 권위주의 정치를 정당화 했지만, 개발독재가 이룩한 경제발전이라는 성공이 민주화의 도전을 초래하여 역설적으로 권위주의의 발전국가를 위협하는 역사적 사례는 한국과 대만은 물론이고 다른 발전도상국가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이처럼 개발도상국가에서 ‘성공의 역설’로 민주화의 도전이 증폭되고 마침내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의 진보가 만들어지는 것이 역사의 추세라면, 21세기의 중국도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경제발전의 성공으로 민주화의 도전이 증폭될 것이고, 그에 따라 결국 탈사회주의와 중국식 민주주의를 찾아가게 될 것이다.”³³⁾

체제전환기에 처한 중국의 문화정책은 향후 중국의 정치체제의 변동에 의해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것은 문화정책은 정치체제와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2011. 2.12 서울대학교 BK국제관에서

33) 서진영 《21세기 중국정치》, 폴리테이아, 2009년, 제11쪽.

<제6회 전문가 정책포럼 종합토론문>

[사회] 이승률 회장

중국의 국가 정책과 역사를 기반으로 한 시대적 문화정책에 대하여 매우 체계적인 정리를 해주신 김관용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제가 '신아시아 시대, 중국 문화정책의 변화'이니 김관용 교수님의 시대별 정리를 참고로 하시되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G2시대, 중국의 급부상 그리고 중국의 패권주의 경향으로 비판받고 있는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중국 문화정책의 변화에 대한 질문과 토론을 전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한중일 3국의 유교문화권, 한자문화권의 공통분모를 찾아 어떻게하면 중국, 일본과 소통하여 공동체 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것인지에 에 관한 관점까지 토론이 진행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1] 이연우 민족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 사무총장

발제한 김관용교수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중국이 지금 경제적인 성장을 이뤘지만 국가주의, 민족주의 등 중국의 고유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사회 안정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동북아공동체, 남북 통일 등 입장에서 볼 때 남북통일의 걸림돌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중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공자, 유교문화 등 전통사상을 우리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활용한다면 동북아공동체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즉 문화가 접목된 이러한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한 중국과의 교류협력이라든가 문화의 활발한 관계유지가 한반도 통일 나아가 동북아공동체 형성에 첩경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중국과 경쟁하기에는 열악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때 문화와 같은 측면을 같이 묶어서 교류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의 활발한 활동이 한 방편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안은 없을까 묻고 싶습니다.

[질문 2] 김재범 2022월드컵축구대회유치위원회 준비국장

중국은 직선제 도입을 못하고 있고, 당내 문제 민주화가 선결적이라고 했는데, 우리시각에서는 오히려 중국의 지도자 선발방식, 후계문제, 지도자층 엘리트 층원 방식이 매우 잘 되어 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실 걸으로는 민주적이지만은 안방정치, 밀실공천 등 문제가 많습니다. 중국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철저히 상향식으로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화라는 것이 물론 급진주의자들은 빨리 서양식 제도를 이식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시장, 이장선거라든지 작은 규모로는 이런일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은.... 역시 상향식으로 갈 때

그것은 시간문제이지 언젠가 (민주화가)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소견입니다. 교수님은 이러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고, 민주화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게 될 것이라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 유영수 국제인턴교류협회 사무총장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중국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나 제일 두려운 것은 중국이 모든 리소스를 분산시키지 않고 중앙집권 계획화에 엄청난 투자가 이뤄지니 과학기술 발전 등에서 우리와 경쟁이 안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과학기술자들이 핵심정권을 잡고 있는데, 그런 계층들은 서양에서 공부하고 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앞으로도 계속 정권의 핵심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한 이러한 것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 정원수 충남대 교수

김관용 교수님의 중국의 변화발전에 따른 문화정책 측면과 이와 관련된 정치발전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듣게되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중국이 참으로 허약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새천년 시대에 중국을 한번 지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왔습니다. 한국은 대단히 점진적인 민주화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문화를 소프트파워라고 본다면 한국은 굉장히 하드파워를 키우면서 소프트파워를 키우는 방향으로 왔는데, 중국은 하드파워를 너무 강화시키면서 소프트파워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한중일 평화공동체를 만들때 우리가 주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우리 지식인들이 그 역할을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제안합니다. 이것은 힘의 지배정복의 개념이 아닌 문화정책을 통해 한중일 평화공동체의 주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점에 관한 교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김관용 교수

우선은 민간교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간교류에서 나타난 현상가지고 정책입안시 반영된다는 점에서 민간교류는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은 확실히 상대적인 빈곤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상대적 빈곤 때문에) 40여건이 넘는 아이들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개혁의 주체는 공산당이기에 때문에 공산당을 감시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료자제들이 부정을 저지르는데 삼권분립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감시할 기관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산당의 투명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개혁하고 경제개혁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경제개혁으로 사회구조는 많이 변했지만 정치개혁이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 중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등소평은 '1840년 아편전쟁부터 모택동이 죽을때까지 중국은 혼란시대'라고 생각하고 중국은 절대 혼란하면 안되는데, 그 방법은 공산주의가 계속 집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동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 생각에 중국에서는 돌발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학교에서부터 이런 (민주화) 교육은 시키지 않습니다. 연변대학도 신입생들이 1달동안 군사훈련을 시킵니다. 대학생들이 이전 70년대 학생들과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돌발사태가 난다면 대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이 날 수는 있지만 대학생들이 데모를 통해 나라가 변할 기미는 안보입니다. 또한 중국 정권에서 두 목소리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택민이 평화적으로 정권교체를 한 이후로 정치내부에 모순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질시키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시진핑으로 교체되는 것도 역대 정권교체 가운데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근일간에 정권 돌발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이 거대국가기기 때문에 문화가 발달하고 사상, 철학이 발달한 시대는 오히려 분열시대였습니다. 가장 활발할 때는 춘추전국시대였지요. 통일하면 필연적으로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믿으라고 하기 때문에 단일사상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소프트 파워가 약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원래 이런 대통시대에는 문화, 예술이 활발치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강렬히 통일되어서 정치적 안정단계에 있지만 개개인의 주체성을 발휘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스스로 지금 200년 사이에 제일 좋은 시대라고 평가하지만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삼국지에서 말하듯이 '헤어진지 오래되면 합해지는 법이요, 합해진지 오래되면 헤어지는 법' 이라 했는데 이것처럼 이러한 리듬이 한 200년씩 지속되어 왔습니다. 중국은 믿음의 한번 붙었다면 200년은 가야 분열시대가 오는 것인데, 이제 그 믿음 시작의 가속도가 붙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당분간은 혼란, 분열이 안생길 것입니다.

[질문 5] 이원엽 서남대학(西南大學) 교수

저는 교수님께서 거시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미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2년에 한국문학을 전공하셨다고 되어있는데 그당시 스승이 66년~76년 문화혁명 시대의 교수님들이었을텐데, 문혁시대 교수님은 사상정신만 좋으면 입학이 되었고, 특별한 논문이 없었다고 들었는데 김관용 교수님께서서는 어떤 분께 어떤식으로 공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6] 정지용 통일미래사회연구소 소장

개념부분에 관해서 한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주의가 약화하면서 대안으로 애국주의가 출연되었다 라면서 애국주의를 민족주의로 표현을 같이 하였고, 그리고 계속해서 민족주의가 가지고 있는 양날의 칼, 서구의 민주압력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중국 내부 소수민족 문제를 부추길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를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개념상의 혼란이 올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게 북한이 중국에 밀착화되는 것에 관해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7] 홍성완 연합뉴스 한민족센터 고문

작년부터 들어오는 중국발 외신을 보면은 천안문에 모택동 초상화보다 큰 공자상을 세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한 외국에 공자학당을 세우는 등 중국정부가 문화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몇 천년전의 사상의 중시하고 있는데는 중국의 어떤 큰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배경에는 늘 선진국이 되기 위한 중국의 계산이 있는 것인지.

중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규모만 가지고는 안되는 것이고 그것을 뛰어넘는 소프트파워, 문화적 역량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을 중국도 잘 알기 때문에 어떤 큰 흐름이 이런 쪽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재물신을 섬기는 중국 사람들에게 중국의 공산주의도 큰 역사에서 볼때 잠시 하나의 흐름이 아니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또한 중국의 일반적인 지식인들이 한국 전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점이 궁금합니다.

[질문 8] 하경근 고문 (前 중앙대 총장)

상식적인 문제를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있는 외국 유학생이 지난달 기준 9만 2천명이 됩니다. 그 가운데 70%, 6만 3천명 가까이 중국학생이고 그 뒤가 4200명의 일본인입니다. 2005년 1만 몇천명에서 불과 5년 사이에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와있는 대학이 한국의 경희대학교 3500명, 연세대 3400명, 이대 3000명 세대학을 합치면 1만명.. 등등 이들은 정원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방 학교 같은 경우에 정원이 부족한데 그 자리를 메워주고 있는 것이 중국 유학생들입니다. 혹시 이것이 중국의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에 많은 유학생을 보낸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중국이 속도가 붙었다고 얘기하셨는데, 중국의 패권론에 관한 여러소리가 있

는데 혹시 선생님 보시는 입장에서 보실 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관용 교수

1978년도 학교 시험보고 28살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은 늦었지만 정상적으로 학부를 마쳤습니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모택동은 진국으로 믿은 것 같습니다. 58년 대학생때, 공산주의는 몇십년이 아닌 몇년사이의 문제이다, 공산주의는 당금 실현된다 라고 했습니다. 인민공산당은 황금다리며, 그 다리를 건너가면 공산주의다 라고 환각하고 15년후에 영국, 20년 후에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며 세계 1위 국가가 된다는 허구적이고 낙관적인 사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공산주의를 믿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모택동은 전쟁에서는 능수지만은 경제건설은 유치원아이만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환멸이오고, 신앙의 위기가 오기 시작했고, 공산주의를 잘 믿지 않게되었습니다. 초급단계이론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공산주의가 실현되자면 초급-중급-고급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초급단계만도 200년이 걸렸기 때문에 공산주의 실현은 언제될지 모른다는 이론입니다. 공산주의는 참 요원한 신기루 같은 존재입니다. 꼭 실현은 되겠지만은 몇백년이 걸릴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현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환멸, 신앙의 위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공산주의를 유지하는 것은 당장 공산주의를 빼버린다면 혼란이 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국 사람들은 대부분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매우 추상적인 이데올로기에는 관심 밖입니다.

중국은 대통의 큰 나라를 움직이기 때문에 주도적인 이념을 내놓고 발맞춰 나가야 하기 때문에 각 예술가들의 자유와 개성, 사상가들의 주체성이 발휘되지 못합니다. 중국은 이런 소프트파워, 예술 생산에서 새로운 것을 하기 어렵습니다. '사랑이 뭐길래' 라는 한국 드라마가 히트치고 '대장금' 열풍이 일어난 것은 인간의 감정에 호소한 드라마였기 때문인데, 이러한 면에서 중국에 비하면 한국이 소국이지만 문화생산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앞서나가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국에 들어온 중국 학자들은 "한국에도 짝퐁이 있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중국인들은 이렇게 한국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이 한국의 문화에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축구, 의료 시설, 서비스 등에 대해 믿는 것도 한국 문화에 대해 긍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특정한 부분에서는 중국을 얼마든지 능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질문 9] 김승호 대사 (前 5개국 대사, 연세대 초빙교수)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삼국시대를 보면 1000년을 유지해왔는데, 중국 역사를 보면 보통 200년~300년 정도입니다. 현재 모택동 주석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절대적인 공산당

1당 독재체제를 유지해오고 앞으로 상당기간 유지할 것이라 많은 사람이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언필중 민주주의를 실시한다고 하면서 향촌 직선제를 운운하는데 그것은 스포츠로 따지면 페인트모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산당의 무소불이의 독재정치로 소위 10년만에 총선거가 교체되는데 중국에서는 이것이 중국 인민들을 위한 민주주의를 실시한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볼때는 중화인민공화국 시대라고 말한다면 이러한 시대가 영원히 갈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최소한도 중국의 국민소득이 3000~3500불되는데 (한국과 영토, 인구 등 비교할 수 없지만) 한국 국민이 향유하고 있는 2만불 시대까지 도달한다면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그 시기에는 EU나 미국과 같이 공산당 독재체제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중국을 개인적으로 10차례정도 다녀오면서 느낀 것이 중국 농촌의 시민들은 농노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현재까지는 중국 인민이 먹고사는데 급급해서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왔지만은, 자유가 무엇이고 생활의 질이 무엇인지, 공자 사상만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느끼게 될텐데, 중화인민공화국 시대가 100~150년 이상 더 갈 수 있을 것인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G2시대에 들어와서 동서양 대결에 있어 동양을 대표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문화, 삶의 방식이 서양의 것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인근국가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중국의 가치, 중국의 문화가 역시 서양 사상보다 우월하구나 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중국 전통문화가 인근국가인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안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호금도, 강택민 보다는 중국 발음대로 후진타오라고 하시는데 좀 더 친숙하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0] 양대인 연변과기대 교수 (사회교육원 원장)

김관용 교수는 여러분야에 박식하고 정통하다. 오늘은 역사문제에 관해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치우대왕에 관한 것인데 중국에서 현재 한민족의 조상으로 세우는데 그것에 관한 김관용 교수님의 견해, 두 번째로 정치문제인데 '중국이 사상해방을 한다면 중국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도 한적이 있는데 중국 사상해방에 관한 견해, 세 번째는 중국은 아버지 나라는 모국, 어머니 나라를 조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관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11] 김재민 연변대과학기술학원 교수

제가 볼때 중국이 패권주의로 가면 안된다고 봅니다. 중국보다 훨씬 강한 나라들이 아

직은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 대등하게 취급당할 권리가 사람에게 있는데 중국이 그렇지 못하다면 계속 도전을 받게될 수 밖에 없지요. G2라는 말은 미국도 중국도 싫어하는 말입니다. 중국에서 외국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을 반역자처럼 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중국에 가이드를 줄 사람들이 그들이더라고 봅니다. 예전에 어떤 관리가 '100명씩 유학을 보냈더니 10명만 돌아온다' 라고 하니 등소평이 '1000명을 보내면 100명은 돌아올것이 아니냐'라고 했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중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의 방향을 잡아줄 것이라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질문 12] 권영순 연변과기대 교수 (전 몽골대사)

일단은 우리는 중국과 매우 가깝게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중국의 언어, 문화 등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오히려 현재는 중국이 동쪽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듯 보입니다. 먼저는 일본, 개방하면서 한국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준것 같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흐름이 아니겠냐는 생각입니다.

중국이 아무래도 대국이니 대국행세를 하고 싶겠지만, 요즘은 작은 것 하나로부터 세상이 바뀌기도 하는 시대이니 앞으로 중국이 예상치 못한 어떤 영향을 받아서 혼란이 올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봐야 합니다. 미국 국무성에서 쓴 책에 중국은 강국은 강국이지만 위태롭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빈부격차 등 여러 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관용 교수

중국 사람들은 국민권을 가진 것을 조국이라 합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조선족은 민족신분과 국가신분이 분리된 사람입니다. 주류인 한족을 제외하고 소수민족이 8%인데 그것도 전국에 퍼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큰 소수민족 집단인 장족, 만족, 회족 등은 언어와 문화가 거의 한족에 동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족들은) 200만 정말 소수인 사람들이 중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딱히 조국이 북조선이다 어디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조국이라는 것은 국적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들이 살던 나라는 모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것은 러시아와 다른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소수민족은 많아야 200년정도 역사인데, 중국은 춘추전국시대부터 2000년 가량 됩니다. 14억 중국 사람들 가운데서 200만이 이렇게 사는 것도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치우대왕에 관한 문제는 4000년전의 이야기라서 현실과는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13] 김용필 중국동포타운신문사 편집국장

현재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젊은 층 문화가 상당한 파워를 형성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근 중국이 인터넷 검열을 심하게 하는 등 문제적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 상당한 인터넷 시대를 맞이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서도 청년들의 문화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관용 교수

이번 이집트 사태도 인터넷을 통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89년 6월 천안문 사태에는 인터넷이 없어 '미국의 소리'라는 중문방송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그당시만 해도 언론 통제를 했는데, 북한은 더 말할 나위가 없지요. 그런데 중국은 요즘은 그렇게 못합니다. 물론 공산당 몰아내자 그러면 큰일나지만 그 외 공산당 간부의 아들 비리 공개 등 이런 것들은 공개할 수 있습니다. 강택민은 '이 세상과 동고동락 하겠다. 이 세상의 대세를 거스르고 평양의 정일형님처럼 살지 않겠다' 라고 말한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질문 14] 서순일 한중문화예술교류협회 이사장

문화정책 일을 하다 보니 중국의 정책을 대략은 압니다. 중국은 정책을 바꾸지 않습니다. 현재 중국은 일본을 이겼고, 7,8년 후에는 미국을 이기고 2050년대부터는 전세계가 중국문화의 이주 사회와 경제로 돌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맑스주의를 재검토하자 라고 인민일보에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금년들어 중국이 문화 측면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문화산업이라면서 문화산업을 국가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의 문화 정책에 관해 얘기를 조금 더 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김관용 교수

중국에서는 전통문화를 꽃피우라는 말처럼 문화유적이 많습니다. 한국처럼 영화, 드라마 등이 아니라도 고전만을 놓고 봐도 문화사업할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에 와보니 한국도 물론 특색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영화, 드라마 등은 중시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15] 조광호 (주)그린비즈니스 대표이사

문화정책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인구정책, 인구문제 등에 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중국

인구절반 이상이 20대 이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의 인구정책과 가족구성에 관해 듣고 싶습니다.

[답변] 김관용 교수

중국은 여전히 인구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을 원치않습니다. 그러나 딜레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농사를 해야하는데 자식이 한명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역시 '성공의 역설'이랄까, 계획성이 없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힘이 커지고 열의가 북돋아지니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정책이 있는지 거쳐 20년도 안되는 사이 13억 인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획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역설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하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올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은 이후 늙은 노인을 4.5명 봉양해야 하는데 현재는 노인 복지시설이 없고, 상당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건의 16] 조성대 연합뉴스 논설위원

지금 말씀중에 공자주의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위협스럽게 생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공자주의는 안정되어 있는 중국에 급격한 변화가 오면 흔들리니 어떤 면에서는 현상유지, 계급주의, 질서유지 측면에서 이것을 내세우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미칠때는 대단히 위험하고, 중국도 엄청난 손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가 1943년 카이로 선언 이후 한국 독립 때 중국이 김구 선생을 불러서 '앞으로 독립에 도움을 많이 줄 것이다, 단지 국시는 삼민주의이다, 군대는 국민당 훈련부 소속으로 해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황당한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흐름에 따라 자유민주국가이며 평등한 대우를 받아서 오늘날 세계 10대 강국이 되어 있습니다.

1948년 그즈음에는 대국도 소국도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소국이 대국되고 대국이 소국 되는 시대입니다. 남에게 많은 것을 주고 섬기면 그것이 대국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50개국에 많은 청년들이 나가서 기술 가르치고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중국이 원자탄 100개 가지고 있으면서도 원자력 발전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 최고의 원자력 발전소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전 공자주의 시대를 배경으로 우리를 소국으로 생각하면은 동북아공동체는 불가능하고, 국제적으로도 중국이 대국임을 강조하면 그 자리도 위태롭다 생각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중국 사람들에게도 진지하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이승률 회장

저는 요즘 '풍류대도(風流大道)'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멤버 가운데 한류전략 연구소의 신승일 소장이 계시는데, 얼마전 중국 북경에서 한국문화 컨퍼런스를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한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협의가 잘 안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류(韓流), 중국에서는 한풍(漢風)이라 부르니 이 두 가지를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풀어가야 중국에서도 협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북아공동체의 문제는 소통의 개념이라 봤을때, 어떤 관점에서는 중국이 공자주의 문화패권주의로 나가는 것이 문제가 되지만 과거시대부터 주어진 한자문화, 유교문화와 같은 전통적 토양과 문화가치 개념이라는 자양분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을 무시하지 말자고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류 문화를 더욱 신장시키려면 상대방의 한풍(漢風)문화도 받아드리면서 초국경(Cross Border) 다자협력 정신을 갖고 서로 소통하고 교류한다면 그것이 이 시대에 합당한 시대정신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번 포럼을 준비했는데 김관용 교수님께서 답변 하신 내용이 성실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6회 전문가 정책포럼에 모여 열띤 공방을 통해 서로 더욱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된 것같아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